

# 방망이 '기지가개'... 뒷문은 '불안'



백용환



이정훈

KIA 연습경기 5차전 삼성에 4-3 승리  
포수 백용환·이정훈 4안타 2타점 합작  
NC 4차전 이어 연승 신고

불펜 필승조 하준영·문경찬 실점  
장타에 흔들리며 약점 노출  
내일 홈에서 NC와 마지막 연습경기

KIA타이거즈가 '안방 화력 싸움'을 앞세워 연습경기 연승에 성공했다.

KIA가 29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KBO 연습경기 5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지난 27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최형우의 역전 스리런으로 첫 승리를 거뒀던 KIA의 연습. 이번에는 '안방'이 뜨거웠다.

이날 나란히 안방을 지킨 포수 백용환과 이정훈이 4안타 7타수 2타점을 합작하며 연승을 이끌었다.

8번 타자로 선발 스타팅에 이름을 올린 백용환이 먼저 KIA 공격에 불을 지폈다.

백용환이 0-0으로 맞선 2회 2사 1루에서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를 날리며 타점을 올렸다. 백용환은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좌전안타를 만들어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5회말 백용환의 대수비로 들어간 이정훈도 연속 안타로 윌리엄스 감독에게 어필했다.

1-1인 7회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훈은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최원준의 2루타에 이어 나온 박찬호의 희생 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이어진 1사 3루 상황에서 최원준이 폭투 때 재치있게 홈을 파고들면서 점수를 추가했다.

3-1로 앞선 8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훈은 이번에는 타점을 수확했다.

이정훈은 2사 1루에서 장필준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며 3루까지 향했다. 점수는 4-1이 됐다.

KIA는 엔트리 경쟁 중인 두 포수의 화력 싸움으로 연습에는 성공했지만 '필승조' 고민을 남겼다.

선발 홍건희가 3이닝 1피안타(1피홈런) 1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등판을 끝낸 뒤 사이드암 변시원을 시작으로 KIA 불펜이 가동됐다.

이후 고영창-이준영-김현준-하준영-전상현-문경찬이 등판했고, 하준영과 문경찬이 실점을 기록했다.

7회 2사 1루에 등판한 하준영이 중견수 플라이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8회 다시 마운드에 올라 선두타자 이성규에게 좌월솔로포를 허용했다.

4-2로 앞선 9회 출격한 문경찬은 구자욱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맞는 등 또다시 장타에 흔들렸다.

불펜 고민을 남긴 KIA는 5월 1일 오후 2시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마지막 KBO 연습경기를 치른다.

한편 광주 동성고 출신의 삼성 내야수 이성규는 홈런 두 방을 날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7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온 이성규는 홍건희와 하준영을 상대로 나란히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멀티홈런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연기된 75경기 7·8월에 순차 편성...취소시 더블헤더

### KBO, 재편성 경기 일정 확정

개막 연기로 열리지 못한 KBO리그 경기가 올림픽 중단 기간과 10월에 재편성됐다.

KBO가 2020 KBO 정규시즌 재편성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3월 28일에서 5월 5일로 개막이 연기되면서 치르지 못한 160경기 중 75경기가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이 기간은 도쿄올림픽 휴식기였지만, 올림픽 연기로 여유가 생겼다. 나머지 미거행 3연전은 9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10월 8일까지 편

성됐다. 취소되는 경기에 대한 시행세칙도 확정해, 5월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취소시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가 열린다.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는 9이닝까지만 진행되고, 혹서기(7-8월)와 월요일에는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는다.

한 팀 기준으로 9경기 연속편성은 이뤄지지 않는다. 더블헤더는 일주일에 최대 1회만 편성해, 일주일에 최대 7경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5, 6, 9, 10월의 3연전 중 첫 두 경기와 2연전

의 첫 경기 취소 시에는 다음날 더블헤더, 동일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 순으로 편성된다.

단, 선수단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 5회 정식 경기 성립 이전에 우천 등의 이유로 경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날 더블헤더 대신 서스펜디드 경기를 갖는다.

3연전과 2연전 주중 마지막 경기 취소될 경우에는 동일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로 편성한다. 일요일 경기는 월요일로 일정이 우선 밀리며, 해당 주에 이미 더블헤더가 편성돼 있으면 동일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를 갖는다.

혹서기(7-8월)에 주중 경기가 취소될 경우 모 두 9, 10월 동일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로 일정을 소화한다. 주말 경기는 월요일, 9-10월 동일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 순이다.

더블헤더와 관련된 특별 엔트리로 시행된다. 더블헤더시 기존 정원에 1명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확대 엔트리 기간은 제외한다.

등록된 선수는 다음날 자동으로 말소되고, 말소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할 수 있다.

확대 엔트리는 2연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기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 기준 28명(26명 출장)에서 5명이 늘어난 33명(31명 출장)이 엔트리에 등록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첫 승 제물은 성남

K리그 1·2 정규라운드 일정 확정  
광주 FC, 다음달 9일 홈경기  
전남은 10일 경남 상대 첫 승 사냥



광주FC가 5월 9일 성남 FC를 상대로 K리그1 복귀전을 치른다. 전남드래곤즈는 10일 장원으로 승격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9일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하나원큐 2020 K리그1의 정규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앞서 예고된 대로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의 맞대결로 전개되며, 5월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는 광주는 9일 오후 7시 K리그1 무대를 다시 밟는다.

성남FC가 그대로 개막전 상대로 배정되면서 광주 박진섭 감독과 성남 김남일 감독의 '동갑내기' 지역대결이 전개된다.

광주축구전용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전이 진행된다.

광주의 2020시즌 첫 원정지는 서울이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2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K리그2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전남은 10일 오후 6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를 개막전 상대로 만난다.

홈 개막전 상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결정됐다. 전남은 16일 오후 4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제주와 홈 개막전을 치른다.

한편 올 시즌 K리그1, K리그2 모두 지난해 38경기에서 11경기 축소된 27경기를 통해 순위를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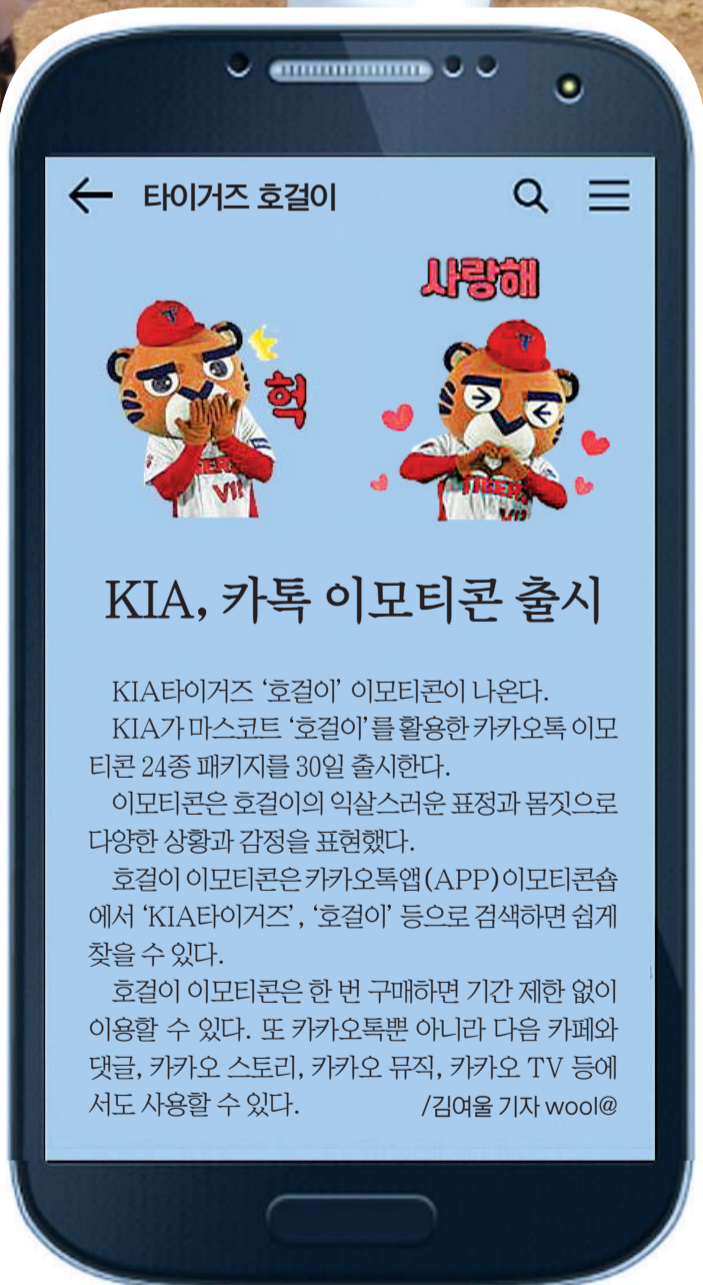
K리그1은 12개 팀이 정규라운드 2라운드(총 22경기)으로 승부를 벌인 뒤, 성적에 따라 상위 6개팀(파이널A)과 하위 6개팀(파이널B)으로 나뉘어 파이널라운드(총 5경기) 대결을 갖는다.

K리그2는 10개 팀이 정규라운드 3라운드(총 27경기) 방식으로 만난다.

K리그2 플레이오프는 11월 18일 시작된다.

정규라운드 3위팀과 4위팀이 이날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갖고, K리그2 정규라운드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경기는 11월 21일에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부패 혐의' 베켄바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면해

2006년 독일 월드컵 개최 선정과 관련해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독일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75) 전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9일(한국시간) "베켄바워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이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스위스에서 진행됐던 5년간의 긴 재판이 중단됐고, 그러는 동안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보도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베켄바워는 1030만 스위스프랑(약 126억원)의 비자금으로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들의 표를 사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로 스위스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독일은 2000년 7월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맞붙어 12대11로 간신히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2015년 10월 "독일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103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에 아시아 지역 집행위원 4명의 표를 사는데 썼다"며 베켄바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위스 검찰은 2015년 베켄바워를 돈세탁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이 미뤄진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베켄바워의 재판은 공소시효 만료로 선고 없이 끝났다.

이에 대해 FI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난 게 실망스럽다. 축구계뿐만 아니라 스위스 사법 행정에도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